

“‘덕업일치’ 하려면

(덕후 중 관심사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 것)

덕심과 직무역량 갖춰라”

(덕후(마니아)의 마음)



정창렬 넥슨 인사실장



넥슨 인사실 정창렬 실장(오른쪽)과 강경중 과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넥슨

지난 12일 오후 3시 경기도 판교에 있는 넥슨본사. 이날 사옥에서 만난 정창렬 넥슨 인사실 실장은 “올해는 넥슨의 개발 스튜디오도 공개채용에 참여해 지난해 보다 2배 정도 채용을 늘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에서도 올해 두 자릿수 채용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넥슨컴퍼니는 3일부터 21일까지 2018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섰다.

구인구직 매칭 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꼽은 입사하고 싶은 벤처기업 3위를 차지하고 싶은 회사로 꼽힌다. 올해 넥슨 채용에서 달라진 점은 네오플, 넥슨지티 등 주요 개발사와 함께 데브캣 스튜디오, 왓스튜디오, 원스튜디오 등 넥슨의 개발 스튜디오도 공개채용에 참여, ‘프로그래밍’, ‘게임아트’, ‘게임기획’ 등 개발 직군 인력을 채용한다는 점이다.

강경중 넥슨 인사실 과장은 “본인이 하고 싶은 지원분야가 다른 곳이라도 넥슨에 많이 지원할 수도 있지만 넥슨 컴퍼니 내부는 복지 수준도 비슷하고 인적

교류도 많이 이뤄진다”며 “회사 이름보다는 본인이 잘하고 관심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 높다”고 귀뜸했다.

넥슨 공개채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이후에는 서류 검토, 역량 테스트(개발 직군)·면

하는 인재상이 다르지만 기본 실력이라 는 허들을 평가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직군위원회는 인적 교류와 직군별 판단 요소에 관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넥슨은 공채 시즌을 맞아 지난 15일 판교사옥에서 오프라인 채용 행사인 ‘커리

여러 방향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넥슨과 같은 게임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로는 사내 복지와 복리 후생 등이 꼽힌다.

강경중 과장은 “게임 회사의 장점으로는 자유로운 문화와 유연성이 꼽힌다”며 “넥슨에서는 신입사원이 아이디어를 내

직원의 경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거나 회사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어린이집이나 임산부 주차 지원, 소소한 선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넥슨 입사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이들은 입을 모아 ‘직무역량’과 ‘덕심’(‘덕후’(마니아)의 마음)을 꼽았다.

강경중 과장은 “넥슨에서는 본인의 강점을 잘 알고 지원하는 직무의 이해도가 높으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뽑는다”며 “이 게임과 장르, 직무에서 어떤 것들을 잘 할 수 있을지 왜 하고 싶은지 미리 고민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정창렬 실장도 “회사의 부속품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덕업일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넥슨의 장점 중 하나”라며 “게임 회사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넥슨의 인재상은 ‘덕심과 덕력을 갖추고 자기계발에 전념하는 넥슨인’이다.

/김나인 기자 silkn@metroseoul.co.kr

프로젝트별 인재 채용 위해 ‘직군위원회’에 자문
신입사원 아이디어 반영… 자유로운 문화 ‘장점’
게임·장르·직무, 잘 할 수 있는 것 미리 고민해야

접 전형을 거쳐 합격자가 선발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 입사한다.

넥슨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해 내부에 직군위원회를 구성해 채용에 대한 의견을 자문하고 역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넥슨 조창기부터 마련한 직군위원회는 각 직무 별로 조직장 등 팀의 ‘구루(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구성됐다.

정창렬 실장은 “각 프로젝트마다 요구

어클립’을 열었기도 했다. 구직자에게 채용 상담과 취업 특강, 포트폴리오 상담 등을 제공한다. 커리어클립은 초반에는 대학 캠퍼스와 복합문화공간, 카페 등에서 자유롭게 열렸지만, 2014년부터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근무 공간을 여주기 위해 사옥에서 진행됐다.

정 실장은 “이외에도 딥러닝 등 신사업 채용을 위해 관련 학회나 발표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에서

거나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등 직장상사와의 관계도 유연하다”고 설명했다.

여성 지원자 수도 절반 가까이 육박한다. 게임 회사에 지원하는 연령대가 2030 세대로 높아지고, 가정을 꾸리는 직원들의 수도 느는 만큼 각종 모성보호와 육아 휴직에 대한 복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정창렬 실장은 “넥슨은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며 “임산부나 출산을 앞둔

SK매직 ‘히트펌프식 대용량 건조기’ 첫 출시

SK매직이 히트펌프 방식의 대용량의 루건조기(사진)를 출시하고 삼성전자, LG전자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번 신제품은 10kg의 건조 용량으로 많은 양의 세탁물 건조가 가능하다. 또 16 가지의 건조코스 및 살균건조, 이불건조, 저온건조, 이불털기, 기능성의류·란제리 건조 등의 특별 코스도 있어 다양한 의류를 편리하게 건조할 수 있다.

특히, 살균 기능이 강화된 히트펌프 건조방식을 채용해 아기 피부 트러블의 주요 원인인 ‘황색포도상구균’과 상처를 통해 감염돼 패혈증을 유발하는 ‘녹농균’, 면역기능이 약한 신생아, 어린이에게 폐렴을 유발하는 ‘폐렴간균’을 완벽하게 살균할 수 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서 살균 인증(99.9% 이상 살균)도 취득했다.

아울러 다림질이 필요한 의류를 알맞게 건조해 주고, 센서건조 기능이 있어서스



스로 의류를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한다. 또, 건조가 완료된 의류의 구김방지 기능 및 미세 보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2중 보습기 필터를 채용해 건조 후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렌탈료는 화이트가 월 3만 2900원, 메탈 실버가 3만 4900원이다. 렌탈 기간 동안엔 내외부 클리닝, 물통청소, 먼지필터 교체 등의 SK매직 안심OK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시불은 각각 115만원, 120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성그룹 20곳, 하반기 채용문 ‘활짝’



삼성중공업도 3년 만에 재개방
상식영역 폐지·직무 검증 강화

국내 재계의 ‘맏형’격인 삼성그룹 계열사 중 20곳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계열사가 채용문을 개방해 숫자상 의미가 크고, 삼성중공업 등 모처럼 공채를 재개한 계열사에도 이목이쏠린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재계 등에 따르면 16일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중 올해 하반기 공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곳은 총 20개사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 삼성디스플레이

▲ 삼성SDI ▲ 삼성전기 ▲ 삼성SDS ▲ 삼성생명 ▲ 삼성화재 ▲ 삼성카드 ▲ 삼성증권 ▲ 삼성자산운용 ▲ 삼성엔지니어링 ▲ 삼성중공업 ▲ 삼성물산 ▲ 호텔신라 ▲ 제일기획 ▲ 에스원 ▲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오에피스 ▲ 삼성서울병원 ▲ 삼성웰스토리 등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그룹 계열사 중 공채에 나선 회사가 17곳이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8개사였다.

특히 최근 수년간 채용문을 닫았다가, 올해 하반기 재개방한 삼성중공업에 눈길이 간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 이후 신입사원 채용을 중단했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설계기술직·생산공정관리직·해외영업직·경영지원직(재무)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그룹 계열사 공채에 도전하는 취

업준비생들이라면 넘어야 할 첫 관문인 삼성 직무적성검사(GSAT)는 다음 달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올해 상반기부터 GSAT에서 상식영역을 폐지했고, 서류·자기소개서·면접 등 전반적으로 직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가령 삼성전자의 경우 자기소개서에서 입사지원 동기와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요한 사회이슈 등을 물어보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가장 어려웠던 경험과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직무 검증 관련 항목을 포함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본인의 지원 직무와 관련한 전공이수 내역과 교내외 관련 활동, 업무 경험 등을 토대로 직무역량을 다방면으로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

정수기 제조社, 고객 서비스 강화 ‘한 목소리’

정수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체 최고 경영자(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수기 위생 강화, 고객 서비스 강화 등을 결의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정수기 사업자 정례협의체’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CEO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코웨이, 교원, 바디프랜드, SK매직, LG전자, 원봉,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등 정수기 회사들

이 두루 참석했다.

관련 업계 협의체는 정수기 소비자 안심 구현 및 신뢰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주요 정수기 업체들이 발족했다. 이후 협의체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이 물 관련 소비자 불만의 감축, 위생관리가 용이한 제품의 연구·개발, 위생관리 서비스 강화 및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협의체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들, ‘상생형 스마트공장’ 관심 쑹

KBIZ 중소기업중앙회

를 제출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기반구축형 사업’이 목표 대비 4배, ‘중간1수준 이상 구축 사업’이 목표 대비 3배에 달하는 신청이 각각 접수됐다.

기반구축형은 스마트공장 미적용업체를, 중간1수준 이상은 설비 정보를 자동 접수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실시간 공장 운영 모니터링과 품질분석이 가능한

단계를 말한다.

중기중앙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호응과 참여가 이처럼 높은 이유는 중앙정부 지원 외에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해 기업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라며 “중기중앙회의 폭넓은 조직력도 기여했고, 삼성전자의 풍부한 제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모델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경상남도가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한 것을 비롯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자금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승호 기자